

한국십진분류법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in KDC

박 수 현 (Su-Hyun Park)*

이 명 규 (Myoung-Gyu Lee)**

초 록

기록관리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KDC를 비롯한 기존의 문헌분류표에서는 분류 항목 배열이 기록관리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분류항목의 전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주제영역별 세목전개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의 학문 특성에 따라 주제영역을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 법·정책, 기록물의 수집·선별·평가, 기록물의 조직,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기관 등 8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현대 주요 문헌분류표인 KDC, DDC, NDC, UDC, LCC의 분류체계를 분석한 후, 『대한민국 국가서지』의 기록관리학 분야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KDC 기록관리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학 관련 주제영역 8개 분야의 내용은 KDC 028로 통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ABSTRACT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is being developed its own independent domains. However, the existing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 such as the KDC don't proper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This classification scheme has the irrational part of the arrangement of the subject items and should be required to rearrange subdivision of the subject areas.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It is set up 8 subject areas, Records Management (General), the law and polices of records management, the collection and appraisal of the records, the documentary organization, recording information services, preservation of the records, archives management, archives and records center, etc. After analyzing the major contemporary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such as KDC, DDC, NDC, UDC, LCC, then It is suggested that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zing classification status and keywords of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data contained in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The contents of the eight subject areas related to the field are changed to allow integration with KDC 028.

키워드: 기록관리학, 기록학, 문헌분류, 분류체계, 한국십진분류법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Records Management, Library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ystem,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 전남대학교 도서관 사서(psh@jnu.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yulee@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6년 8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16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9월 1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3): 25-50, 201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3.025>]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학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기록관리의 제도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전문직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기록관리 분야의 학술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내 기록관리학의 최초 교육과정은 목포대학교 대학원에서 실시되어 1999년에는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이 되었고 이후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학의 기록관리학과 설치와 함께 학술단체로서 1999년에는 ‘한국기록관리학회’가 2000년에는 ‘한국기록학회’가 설립되었다. ‘한국기록학회’는 2000년부터 학회지 『기록학연구』를 발간하였고,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01년부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발간하였다. 기록관리학은 전문 학회와 해당 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연구 성과를 통하여 학문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문적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발전해가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가 방대해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기록보존소’를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기록원’(대통령령 제 18392호, 2003.5.24.)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 업무를 국가에서 강조하고, 그에 따른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면서 기록 및 기록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기록관리학이 학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학의 역사가 짧고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독자적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 역사학, 고문서학, 서지학 등과 동일한 혹은 하위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문헌분류표인 한국십진분류법에서는 기록관리학 관련 항목이 미비하며, 상세 전개가 필요한 경우 문헌정보학의 하위분류를 따르게 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주요 문헌분류표인 듀이십진분류법, 일본십진분류법, 국제십진분류법, 미의회도서관분류법 등에서도 문헌정보학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전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는 기록관리학 관련 주제의 도서 출판의 양이 많지 않고, 한국십진분류법의 경우 문헌정보학 관련 항목 등으로 확장전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문헌정보학과는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체계가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며, 기록관리학 분야의 분류 적용현황을 분석해보면 특정한 분류기호에 다양한 주제의 자료가 집중되어 있어서 분류의 의미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문헌분류의 특성상 한번 분류된 도서를 새로운 분류로 이동·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대학원을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자리잡고, 학문이 체계화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체계를 학문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연구는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 및 연구영역을 조사하여 기본적인 주제영역을 고찰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십진분류법(이하 ‘KDC’

라 함), 듀이십진분류법(이하 'DDC'라 함), 일본십진분류법(이하 'NDC'라 함), 미의회도서관분류법(이하 'LCC'라 함) 등 현대의 주요 문헌분류표를 조사·비교하고, 대한민국국가서지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KDC 유별자료 현황 및 주제어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KDC 기록관리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기록관리학 분야의 분류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기록관리학과 같이 학문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학제성이 높은 학문에 관한 분류체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조사는 주로 분류체계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주제 분야별로 문헌분류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KDC를 중심으로 특정 주제 분야를 선정하여 KDC와 주요 분류표간의 분류항목을 비교 분석하고 KDC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분류표의 단순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과 유사한 '국가서지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김정현과 문지현(2001)은 실제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분류표의 실증적인 분석방법 적용을 통한 KDC 농학 분야의 수정전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

헌목록정보 내의 농학문헌 5,400여건을 추출하여 KDC 농학류를 대상으로 분류표를 적용하고, 각 문헌들의 분류기호가 대상 문헌의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문지현과 김정현(2009)은 어린이도서 분류법의 개발을 위해 KDC를 사용하는 3개의 어린이 도서관을 대상으로 소장자료의 유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세부항목 설정과 전개수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정현(2012)은 KDC 개정작업 시 분류표의 실증적인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의류학 분야 KDC 유별 자료현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수정(2013)은 KDC 디자인학 분야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KDC, DDC, LCC, NDC를 비교분석한 후, 『대한민국 국가서지』를 통해 자료현황을 조사하여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디자인 이론분야와 디자인 응용분야에 세목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희진과 김정현(2013)은 『대한민국 국가서지』에서 체육학 분야 자료 38,585건을 추출하여 KDC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분류기호에 상이한 자료가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현(2014)은 『대한민국 국가서지』에서 관광학 분야 자료 9,423건을 추출하여 KDC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일 분류기호인 326.39에 자료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고, 관광학의 4개의 분류항목을 39개로 세분한 수정전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

는 학제성이 높은 기록관리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관련 주제의 문헌분류 효용성을 높이고, 향후 문헌분류표나 연구분류표의 체계적인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기록관리학의 개념 및 주제영역

2.1 기록관리학의 개념

기록의 생산이 늘어나고 그것을 보존할 기록관이 설치되어 그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록관에서 기록의 평가나 선별, 조직 등 실질적인 기록관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기록관리의 이론과 방법론이 등장하였고, 기록관리인 단체에서 학술지를 발간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공식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도 이루어졌다. 또한 기록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작된 대학의 교육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록관리를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연구자 집단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는 세계 각국의 유구한 기록의 역사와 그 기록을 관리하는 전통속에서 서서히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77).

미국아키비스트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2016)에서는 기록학(Archival Science)을 “기록물의 평가, 수집, 입증, 보존, 열람의 실재를 지원하는 이론”으로 정의하였고,

기록관리(Archives Management)는 “영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을 평가, 수집, 정리, 기술, 보존, 입증,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관리”로 정의하였다. 국내의 기록학용어사전에서는 기록학을 “기록된 자료의 평가·수집·진본 확인·보존·검색 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학문으로서, 19세기 유럽의 문서학(diplomatics)에 연원을 두고 있다”(한국기록학회 2008, 63)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록관리학사전에서는 기록관리학을 “현용기록(current records), 준현용기록(semi-current records), 보존기록물(archives), 보존문서(manuscript repository) 등 전반적인 기록업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록물의 평가 및 제적, 수집, 분류 및 배열, 목록 기술, 참고 봉사, 전시 홍보, 보존 그리고 이용자봉사 등에 대한 이론 및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최정태 외 2005, 7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학은 기록학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원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기록관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과정 명칭을 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기록학’을 과정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록관리학’을 학문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록관리학은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인쇄공학, 생화학, 건축공학, 전산학 등과 깊이 관련된 학제성을 띤 학문이다. 특히,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은 두 학문 분야가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 도서관과 보존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자료관리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관련성을 가진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81). 기록관리학에서 요구되는 학제적 지식을 정리

하면 첫째, 기록 관리적 측면에서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둘째, 기록보존적 측면에서 인쇄공학, 생화학, 건축공학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기록전산화 측면에서 전산학, 정보공학 등의 학문참여가 필요하다(한미경, 노영희 2011, 48-50).

이와 같이 기록관리학은 보존가치가 있는 레코드의 선정, 정리, 보존 및 관리와 이를 서비스 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경영학,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과 인쇄공학, 생화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등 자연과학과도 학제성이 높은 특성을 지닌 학문임을 알 수 있다.

2.2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

기록관리학 범주에 속하는 주제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록관리학 개론서의 목차와 기록관리학 범주 관련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설정한 주제영역이 실제로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원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해당 주제의 교과목 개설 여부를 파악하였다.

2.2.1 기록관리학 관련 도서

우선 1차적으로 기록관리학 범주에 속하는 주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에서 발행한 기록관리학 분야 개론서의 목차를 살펴보았다.

Williams(2008)의 『기록관리학의 이해』에서는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원칙과 목적, 선정·평가 및 수집, 아카이브 정리와 기술, 접

근·참조·홍보, 보존, 아카이브 서비스 관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미경과 노영희(2011)는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에서 기록·기록관리·기록전문가, 기록관리와 기록관리학, 기록관리의 법제화, 기록의 관리, 기록의 평가와 보존, 전자기록과 기록관리, 대통령기록물과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세계의 국가기록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최정태(2006)는 『기록학개론』에서 기록·기록관, 기록학의 이해, 기록의 평가선별, 기록물의 조직, 정부기록물·정부간행물, 대학기록관, 기록전문가와 기록학교육, 기록물의 보존, 기록관련 국가기관과 학술단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2013)는 『기록관리론』에서 기록과 기록관리, 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리와 법, 기록의 선별과 평가, 기록의 분류와 기술,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관리, 전자기록시스템, 디지털 아카이빙, 기록관리 기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김정하(2007)의 『기록물관리학 개론』과 Schellenberg의 저서를 번역한 이원영(2002)의 『현대 기록학개론』의 목차 및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앞에서 살펴본 영역과 유사한 주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을 정리하면 기록관리학은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 법·정책, 기록물의 수집·선별·평가, 기록물의 조직,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기관 등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2 기록관리학 연구영역

기록관리학의 세부 주제영역을 연구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희정(2005, 219)은 국내와 미국에서 발간된 주요학술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기록관리학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여 국내의 연구영역을 기록관리 발전방향·정책 및 교육·인력제도 영역, 기록보존소 제도 영역, 기록관 기능 및 역할 영역, 역사 기록물 관리제도 영역, 기록물 수집과 분류 영역, 디지털보존·전자기록물 관리 영역 등 6영역으로 구분하고, 미국의 연구영역은 기록관리 원칙·평가·관리기법 영역, 아카이브 역사 영역, 정부정책 영역, 이용자 서비스 영역, 표준과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전자기록관리 영역, 디지털 보존 영역 등의 6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2007)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간된 기록관리학 연구 영역을 포함한 학회지 5종(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서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 145건의 내용을 분석하여 전자기록관리·디지털보존, 지식관리와 기록관리,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기술·목록, 대학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중국 당안학, 기록물 분류, 인쇄자료보존, 사경 분석, 기록관리 정책·제도, 기록관리학 영역·교육 등 12가지의 기록관리학의 연구영역을 파악하였다.

장로사, 김유승(2009)은 기록관리학과 관련된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등 5개 학회지에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

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 99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 기록관리학의 정보학 분야 연구영역을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 공개,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자문서, 기록(정보) 디지털 콘텐츠, 웹 아카이빙, 기록물 전거 제어(시스템), 디지털 보존, 전자정부, 정보자원 공유·지식경영·지식관리시스템, EAD, 디지털(정보)화, 이메일기록·전자우편문서, 저작권,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 지적구조, OAIS 참조모형, 데이터베이스, 보존정보패키지(AIP), 시소러스, 온톨로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파일링시스템, 포맷등록시스템 등 26개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이 전통적 종이기록물에서 전자기록물로 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기록관리학에서 전자적 형태의 기록정보의 생산, 관리,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학의 영역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기록관리학의 정보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전문학술지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종으로부터 핵심 연구논문 344개를 분석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을 기록물, 기록물관리, 정책·제도, 시스템, 체계·체제, 기관, 분류·목록·기술, 표준·표준화, 정보서비스, 아카이브즈·아카이빙, 장치·장비·용품, 기준·규정·규칙, 인력, 교육·교과과정, 법·법령, 기록관리학, 평가, 기록매체, 모형, 메타데이터, 기술, 윤리, 기타 등 2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해당영역의 연구대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박희진(2014)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Archivaria' 학회지에 발간된 7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북미지역 기록관리학의 연구영역을 크게 3가지 영역,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 기술, 기록물 유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기록관리 이론모델, 교육, 정책·법률, 역사, 수집·선별·평가, 정리·기술, 정보서비스, 전자기록관리·기록관리시스템, 보존·디지털아카이빙, 정부기록, 개인·일위기록, 주제기록, 시대·지역기록, 특수기록 등 14개의 연구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이 제시한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영역을 요약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영역의 구분은 박희진이 제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연구영역은 앞서 기술한 학자들의 영역을 종합하여 재정리 하였다.

2.2.3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국내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교육과목 개설 기준을 제시하여 기초영역, 전문영역, 기타 등 3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초영역은 기록관리학 교육에 선행적으로 필요한 지식으

로 정부조직 및 행정론,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 관련 법령이 이에 속한다. 전문영역은 기록관리학의 필수적인 전문 지식으로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론, 기록정보서비스론,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시스템론, 업무분석론, 민간기록관리론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실습, 논문지도는 기타에 속한다.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학원 교과과정은 2016년 현재 석·박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교과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6개 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대학의 교과목 과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상의 6개 대학 대학원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을 교과 내용별로 그룹화하면 <표 3>과 같다. 교과 내용의 구분은 기록물 관리법에서 제시한 구분을 따랐으며, 교과내용의 범주화는 개론서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동일한 교과목명은 한번만 기술하고 중복될 경우 중복된 횟수를 교과목명에 숫자로 표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록관리학 범주에 속하는 주제와 교과과정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록관리학 연구주제 영역

구분	연구 주제 영역
기록관리일반	기록관리의 기초이론, 기록관리의 원칙, 기록관리학 교육, 아키비스트 윤리, 기록관리학 관련 정책·법률, 기록관리 제도, 기록관리 역사 일반, 기록관리 기술·시스템 역사, 국가별 기록관리 역사
기록관리 기술	기록물 수집, 기록물 선별, 기록물 평가, 기록물 분류, 기록물 목록, 기술규칙, 메타데이터, 접근·검색·outreach 서비스, 기록물 공개, 정보자원 공유, 이용자연구, 전자기록관리 전략, 기록관리시스템, 시스템 기능요건, 장기보존전략, 보존사례, 디지털아카이빙, 기록물 보존 기술, 인쇄자료 보존
기록물 유형	정부기록, 개인기록, 주제기록, 시대·지역기록, 특수기록, 각종 기록관

〈표 2〉 6개 대학의 대학원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대학명	교과 과정	과점수
경북대	기록학입문, 기록정리와 기술, 기록의 보존과 복구, 한국의 기록관리 체제, 기록관 관리와 경영, 한국기록관리의 역사, 한국고문서 연구, 한국현대기록 연구, 지역사 연구, 기록학 연습, 기록학 특강, 기록관리실습, 현행기록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정보기술과 기록, 시청각기록 연구, 세계의 기록관리 체제 I, II, 한국행정사 연구, 기록의 평가와 수집, 정보공개론, 전자기록관리, 구술사: 이론과 방법, 행정법 총론, 석·박사학위 논문연구, 한국현대사연구, 한국법제사연습	27
부산대	기록관리학총론, 한국기록문화사,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조직론, 고문서관리론, 기록평가이론, 기록보존이론, 기록관리정책론, 기록관리현장실습, 기록관운영론, 기록관리시스템론, 지방기록관리론, 기록과행정법제, 비교기록관리론, 기록정보서비스, 구술기록관리, 디지털라이브리빙연구, 논문연구	18
원광대	기록관리학개론, 전자기록관리론, 기록관리실습, 기록관리전산화방법론, 기록보존과보존과학, 기록의분류와평가, 시청각기록관리론, 기록정보서비스론, 한국기록관리법규, 기록관운영관리론, 기록학연습, 기록학특강, 한국근현대기록사료의구술자료, 한국고문서분류관리, 한국지방사와 지방기록관리, 행정법총론, 한국행정체계론, 정보관리체계론, 동양의기록관리제도사, 유럽의 기록관리제도사, 미국의기록관리제도사, 기록학논문연구 1,2, 기록평가선별론연구, 업무분석론 특강, 기록관리시스템특강, 현용기록관리론	27
이화여대	기록관리학개론, 전자 & 시청각 기록물 관리론, 기록정보관리론, 기록문서분류, 기록물평가론, 기록물색인론, 기록관리연구방법론, 전문기관기록물관리론, 기록정보서비스론, 한국서지학, 한국전적론, 기록정보관리실무실습, 행정정보체계론, 기록자원개발론, 행정관리론, 전자기록물관리론, 기록정보시스템평가론, 고문서강독, 기록정보검색론, 인터넷 기록자원조직, 기록관리특강, 한국 근현대 기록사료론, 한국기록관리사, 기록문서목록, 기록물 자동화론: 색인 및 검색, 기록관리기관 경영론, 한국 기록물관리관련법 연구, 기록물 보존론, 구술사 연구	34
전남대	정책평가론, 한국고문서연구, 정보검색이론연구, 기록보존학연구, 한국현대사연구, 한국사사료연습1,2, 행정윤리, 기록관리이론, 기록관리기술, 기록물조직이론, 기록물가치개발론, 정보시스템설계특론, 기록관리학방법론, 기록관리정책론, 기록관리법제연구, 기록관운영론, 기록관리세미나, 기록관리현장실습, 기록정보서비스연구	20
중앙대	기록관리학개론, 한국기록물감정론, 기록물평가론, 기록물 보존관리론, 분류/기술방법론 연구, 기록관리학 세미나, 기록 자료 보존 세미나, 기록자료 분류 특강, 기록관 운영론 특강, 한국정부론, 기록행정특강, 기록행정법특강, 한국기록문화사특강, 한국근현대기록사료 연구, 기록물 관련법 연구, 기록학연구방법론, 기록자료 메타데이터 특론, 구술사조사방법론, 서양기록물과 사료연구, 한국 지역기록물과 지역사 연구, 중국기록물과 사적연구, 기록행정체계론, 현대 중국 기록관리학 개론, 전자기록물관리 이론 및 실습, 전자기록물 운영 세미나, 기록물 접근 및 서비스 세미나, 도서관 및 기록관 보존, 한국고문서체감정연구, 동아시아고대기록물비교연구, 오디오 및 비주얼 아카이브 자료 관리, 한국기록사료연구, 중국의 기록관리 전통과 당안학, 행정정보체계론	33

〈표 3〉 기록물관리법의 교과과정 개설기준에 따른 6개 대학 교과과정 영역

구분	주제 영역	교과목명
기초 영역	기록관리정책 및 행정	기록관리정책론(2), 한국행정사 연구, 한국행정체계론, 기록행정학특강, 기록행정체계론, 행정정보체계론, 행정관리론, 행정윤리, 한국정부론, 행정정보체계론, 외국의 기록관리제도 연구, 한국의 기록관리 체제, 세계의 기록관리 체제(2), 정책평가론, 정보관리체계론, 업무분석론특강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학총론, 기록학입문, 기록관리이론, 기록관리학개론(3), 현대중국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역사	한국기록문화사, 한국기록관리의 역사, 한국현대기록연구, 지역사 연구, 한국지방사와 지방기록관리, 동양의기록관리제도사, 유럽의기록관리제도사, 미국의기록관리제도사, 한국기록문화사특강, 서양기록물과 사료연구, 한국지역기록물과 지역사 연구, 중국기록물과 사적연구, 한국기록사료연구, 중국의 기록관리 전통과 당안학, 한국기록관리사

구분	주제 영역	교과목명
기초 영역	기록관리 관련법	기록과행정법제, 행정법 총론, 한국법제사연습, 한국기록관리법규, 행정법총론, 기록행정법특강, 기록물 관련법 연구, 한국 기록물관리 관련법 연구, 기록관리법제연구
전문 영역	기록물 수집	기록물가치개발론, 기록자원개발론
	기록물선별평가	기록평가이론, 기록의 평가와 수집, 기록의분류와평가, 기록평가선별론연구, 기록물평가론(2), 한국기록물감정론
	기록물 분류	기록조직론, 분류/기술방법론 연구, 기록자료 분류 특강, 기록문서분류
	기록물 기술	기록정리 기술, 기록물조직이론, 기록자료 메타데이터 특론, 기록물색인론, 기록문서목록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2), 정보공개론, 정보검색이론연구, 기록정보서비스연구, 기록정보서비스론(2), 기록물 접근 및 서비스 세미나, 기록정보검색론, 기록물 자동화론: 색인 및 검색, 정보시스템 설계특론, 기록정보시스템평가론
	기록물관리	기록정보관리론, 기록관리특강, 비교기록관리론, 현행기록관리, 기록관리기술, 현용기록관리론, 기록정보관리특론(2)
	전자기록관리	전자기록관리론(2), 정보기술과 기록, 전자기록관리, 기록관리전산화방법론, 전자기록물관리이론 및 실습, 전자기록물 운영 세미나, 전자 & 시청각 기록물 관리론, 전자기록물관리론,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론, 기록관리시스템특강
	디지털아카이빙	디지털아카이빙연구
	기록물 보존	기록보존이론, 기록의 보존과 복구, 기록보존학연구, 기록보존과보존과학, 기록물 보존관리론, 기록 자료 보존 세미나, 도서관 및 기록관 보존, 기록물 보존론
	기록관 운영	기록관운영론(2), 기록관 관리와 경영, 기록관운영관리론, 기록관 운영론 특강, 기록관리기관경영론
기록관리 기관	지방기록관리론, 전문기관기록물관리론	
주제형태별기록	고문서관리론, 구술기록관리, 한국고문서연구(2), 시청각기록 연구, 구술사, 한국현대사연구(2), 한국사사료연습(2), 시청각기록관리론, 한국근현대기록사료와구술자료, 한국고문서분류관리, 한국근현대기록사료 연구, 구술사조사방법론, 한국고문서체감정연구, 동아시아고대기록물비교연구, 오디오 및 비주얼 아카이브 자료 관리, 한국서지학, 한국전적론, 고문서강독, 인터넷 기록자원조직, 한국 근현대 기록사료론, 구술사 연구, 고문서학개론,	
기타	기록관리실습	기록관리현장실습(2), 기록학 연습(2), 기록관리실습(2), 기록정보관리실무실습
논문지도	기록관리연구방법론, 논문연구, 석·박사학위 논문연구, 기록관리세미나, 기록학논문연구(2), 기록관리학 세미나, 기록학연구방법론, 기록학 특강(2), 기록관리학방법론	

우선 기록관리학의 연구영역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주제영역은 1차적으로 기록관리학 개론서를 종합하여 구분한 8개 주제영역 혹은 그 하위 세부주제에 포함하였다. 국내 대학원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은 학문의 학제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주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먼저 제시한 주제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내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파악하였다.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변화와 학문발전에 따라 새로운 주제영역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기록관리학 분야에서는 전자기록관리가 대표적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세부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학 주제영역, 세부주제, 교과과정 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기록관리학 주제영역, 세부주제 및 교과과정

번호	주제영역	세부주제	교과과정
1	기록관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의 이론과 원칙 • 기록관리 교육 • 기록관리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학 개론 - 기록관리의 역사 - 기록관리실습 - 논문지도
2	기록관리 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법 • 기록관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관련 법 - 기록관리 정책 및 행정
3	기록물의 수집·선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수집 • 기록물 선별 • 기록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수집 - 기록물 선별·평가
4	기록물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분류 • 기록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분류 - 기록물 기술
5	기록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 및 열람 • outreach 서비스 • 이용자연구 • 참고봉사 • 서비스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정보서비스
6	기록물 관리 및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관리 • 전자기록관리 • 디지털아카이빙 • 기록물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관리 - 전자기록관리 - 디지털 아카이빙 - 기록물 보존
7	기록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 전문인력 • 관리와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 운영
8	기록관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기록 및 기록관 • 관련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기관 - 주제·형태별 기록

3. 기존 문헌분류체계의 기록관리학 분야 비교

이 장에서는 대표적인 기존의 문헌분류체계를 갖춘 KDC, DDC, NDC, UDC, LCC의 기록관리학 항목을 추출하여 앞에서 구분한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기록관리 일반

KDC에서는 028의 하위 항목을 기록관리의 세부영역으로 전개할 수 있는 별법을 두었으며

로 기록관리학 일반 영역을 028(기록관리)에 분류할 수 있다. 기록관리의 이론은 028.01(기록관리 이론)에 분류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 교육은 028.07(기록관리 교육 및 훈련)에 분류할 수 있고, 기록관리역사는 028.09(기록관리역사)를 통해 분류가 가능하다. 기존 문헌분류표에서 기록관리학은 주로 문헌정보학의 하위 항목에 속해있으며, 일부 분류표에서는 사무관리 및 역사학의 하위 항목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 일반에 대해 KDC, DDC, NDC, UDC, LCC를 비교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문헌분류체계 비교(기록관리 일반)

주제영역	KDC	DDC	NDC	UDC	LCC
기록관리 일반	028 기록관리	651.5 기록관리	014.71 문서, 기록	005.92 기록관리	-
	028.01 기록관리 이론		018.09 문서관, 사료관	930.25 기록학, 보존기록	
기록관리 교육	028.07 기록관리 교육 및 훈련	-	-	-	
기록관리 역사	028.09 기록관리 역사	-	-	-	

3.2 기록관리 법·정책

KDC에서 기록관리 법·정책은 028.1(기록관 행정 및 재정)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028.13(기록관리 법규 및 기준)과 028.131-37(각국의 기록관리법)에서는 기록관리 법을 분류할 수 있고, 028.11(기록관리 정책 및 행정), 028.12(기록관 계획 및 협력)에 관련 정책을 분류할 수 있다. KDC에서는 기록관리 법·정책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DDC에서는 기록관리 법은 법학의 하위 항목에 분류하고, 기록관리 정책은 문헌정보학의 하위 항목에 분류하여 관련주제의 문헌을 인접

배치할 수 없다. NDC, UDC, LCC에서는 관련 상세전개 항목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 법·정책에 대해 기존 문헌분류표를 비교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3.3 기록물 수집·선별·평가

KDC에서는 기록물 수집은 028.42(자료수집) 항목에 분류할 수 있다. 자료수집의 하위 전개를 보면 028.421(구입), 028.422(기증, 교환), 028.423(수집실무), 028.429(비도서자료의 수집)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기록물의 선별, 평가 등의 업무는 028.423(수집실무) 항목

〈표 6〉 문헌분류체계 비교(기록기록관리 법·정책)

주제영역	KDC	DDC	NDC	UDC	LCC
기록관리 법·정책	028.1 기록관 행정 및 재정	-	018.091 문서관리정책, 문서관 행정·재정·법령	-	-
기록관리 법	028.13 기록관리 법규 및 기준	344.092 도서관과 기록관 법		-	
	028.131-37 각국의 기록관리법				
기록관리 정책	028.11 기록관리 정책 및 행정	021.8 정부와의 관계	005.921 기록관리 정책 결정		
	028.12 기록관 계획 및 협력				

에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KDC와 DDC에서 수집·선별·평가에 관한 상세전개는 선별·평가 보다는 수집 업무 절차와 수집 자료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KDC와 DDC는 기록학 분류전개를 문헌정보학 항목을 바탕으로 세분하고 있고, 문헌정보학에서는 수서 업무가 주로 구입, 수증, 교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록관에서는 선별 및 평가가 중요한 업무이지만, 도서관에서 입수되는 대부분의 자료는 연구의 결과물로 출판단계에서 이미 평가나 선별이 일정 부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별 및 평가가 중요한 업무로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NDC에서는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모든 과정을 한가지 분류기호에 포함하고 있으며, UDC에서는 기록물 선별과 평가에 관하여 세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록물 수집·선별·평가에 대해 기존 문헌분류표를 비교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3.4 기록물의 조직

KDC에서 기록물의 조직은 028.4(기록물 수집, 정리, 보존)에 분류할 수 있으며, 기록물 분류

는 028.44(분류법)에, 기록물 목록은 028.43(목록법, 서지조정)에 분류할 수 있다. 028.44(분류법)의 하위전개를 보면 일반분류표, 특수분류표, 분류규정, 색인작성법, 초록작성법, 통제어휘 등 다양한 분류표와 자료의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에 따라 상세 전개되어 있다. 028.43(목록법, 서지조정)의 하위전개는 목록실무, 목록규칙, 목록의 종류, 비도서자료의 목록작성법, 분담목록, 카드목록, 목록편성법, 목록용품 등 목록 이론 및 실무와 관련한 다양한 항목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처럼 KDC에서는 기록물 조직에 관한 세부항목은 도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어서 기록물의 조직에 하위 항목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분류법의 하위 항목인 일반분류표에서는 KDC, DDC 등 문헌분류표를 포함하고 있고, 색인이나 초록 등은 주로 문헌분류에서 중요한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또한, 목록법의 하위 항목에서도 기록물 목록에서 중요한 항목인 메타데이터에 관한 항목보다 목록규칙, 카드목록, 목록편성법, 목록용품 등 문헌의 목록에서 중요한 항목이 상위 개념에 포함되어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록물의 조직에 대해 기존 문헌분류표를 비교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7> 문헌분류체계 비교(기록물 수집·선별·평가)

주제영역	KDC	DDC	NDC	UDC	LCC
기록물 수집·선별·평가	-	-	-	-	
기록물 수집	028.42 자료수집	025.2814 기록물의 수집 및 장서개발	018.094 자료의 수집· 조직화·보존	-	-
기록물 선별	028.423	-	-	005.921.1 보유, 폐기	
기록물 평가	수집실무	-	-	921.8 파기	

〈표 8〉 문헌분류체계 비교(기록물의 조직)

주제영역	KDC	DDC	NDC	UDC	LCC
기록물의 조직	028.4 기록물 수집, 정리, 보존	025.3414 기록물의 목록, 분류, 색인	018.094 자료의 수집·조직화·보존		
기록물 분류	028.44 분류법	-	-	-	-
기록물 목록	028.43 목록법, 서지조정	-	-		

3.5 기록정보서비스

KDC에서 기록정보서비스는 028.5(기록관 봉사 및 활동)에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정보의 검색 및 열람은 028.525(정보탐색 및 검색서비스)와 028.51(기록관자료 이용 및 대출)에 분류할 수 있으며, 기록물 전시·홍보는 028.59(기록관활동안내)와 028.37(기록관 홍보)에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교육, 이용자 연구, 아웃리치서비스 등은 028.526(이용자 지도

및 안내), 028.54(이용자 연구), 028.58(아웃리치서비스)에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KDC와 DDC에서는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의 항목의 분류는 가능하지만 기록정보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분류항목 배열이 필요하다. 반면, NDC, UDC, LCC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상세전개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해 기존 문헌분류표를 비교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문헌분류체계 비교(기록정보서비스)

주제영역	KDC	DDC	NDC	UDC	LCC
기록정보 서비스	028.5 기록관 봉사 및 활동	025.52 참고정보서비스			-
검색 및 열람	028.525 정보 탐색 및 검색 서비스	025.524 정보검색			Z699.5.A7 기록물 저장 및 검색 시스템
	028.51 기록관자료 이용 및 대출	025.6 대출서비스			
기록물 전시·홍보	028.59 기록관활동안내	-	018.095 자료의 전시, 자료의 이용, 자료·전시의 홍보	-	-
	028.37 기록관 홍보				
이용자 교육	028.526 이용자 지도 및 안내	025.56 오리엔테이션 및 서지 이용교육			-
이용자 연구	028.54 이용자 연구	-			-
아웃리치 서비스	028.58 아웃리치서비스	-			-

3.6 기록물 관리 및 보존

KDC에서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은 028.46(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기록관리 및 디지털아카이빙은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의 하위 항목이 아닌 별도의 항목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자기록관리는 028.49(비도서자료 및 디지털자료의 관리)의 하위 항목인 025.4995(전자자료)에 분류할 수 있으며, 디지털아카이빙은 028.48(웹아카이빙)에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록물 보존은 028.46(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분류할 수 있으며, 자료 소독/훈증/탈산, 온도 및 습도 관리, 열화/파손 방지 및 복원 등 상세 분류가 가능하다.

이처럼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분류전개를 살펴보면 KDC와 DDC에서 공통적으로 전자기록관리 및 디지털 아카이빙은 기록물 보

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세전개가 부족하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분류항목을 추가하더라도 분류기호가 너무 길어지는 십진식 문헌분류표의 본질적인 단점이 드러난다. NDC에서는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상세전개가 필요하다. UDC와 LCC에서는 사무기록을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히 전개되어있다. 이와 같이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대해 기존 문헌분류표를 비교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3.7 기록관 운영

KDC에서 기록관 운영은 028.3(기록관 경영, 관리) 항목에 분류할 수 있다. 기록관 전문인력은 028.32(기록관 직원, 기록물 관리자) 항목에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은 다시 인사, 관리자, 중간관리자, 기록관리사, 사무직원 및 기타

<표 10> 문헌분류체계 비교(기록물 관리 및 보존)

주제영역	KDC	DDC	NDC	UDC	LCC
기록물 관리 및 보존	028.46 기록물 관리 및 보존	025.7 보관과 이용을 위한 준비	018.094 자료의 수집·조직화·보존	005.922 기록관리 절차	HF3735+ 사무기록관리
		025.8 장서 유지 및 보존	336.55 문서정리		
		651.5 기록관리			
전자기록관리	028.49 비도서자료 및 디지털자료의 관리	651.58 마이크로 복제파일	-	-	HF5738 전자파일링시스템
	025.4995 전자자료				
디지털 아카이빙	028.48 웹아카이빙	651.59 디지털화 파일	-	005.922.52 기록보존 방법으로서의 교체	HF5737 문서촬영시스템
기록물보존	-	025.84 기록물 보존	-	005.922.5 보존	-
		651.51 기록의 보존, 처분			

등 직원의 직급과 역할과 관련한 상세전개가 이루어진다. 또한 직원의 보수, 복무규정, 공제조합 및 노동조합, 직원 복지 및 후생 등 인사, 회계, 서무 등 업무에 관한 상세전개도 할 수 있다. 기록관 운영에 관한 관리와 행정은 028.34(기록관 예산, 결산, 회계), 028.35(기록관 조사, 통계, 평가), 028.36(기록관 물품관리)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처럼 KDC와 DDC의 기록관 운영의 세부 항목은 다양한 항목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관리와 행정에 관한 항목 외에 기록

전문직에 관한 상세 전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NDC, UDC, LCC에서도 기록관 운영에 관한 상세전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록관 운영에 대해 기존 문헌분류표를 비교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3.8 기록관리 기관

KDC에서는 각종 기록관에 관한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호가 부족하다. 028(기록

<표 11> 문헌분류체계 비교(기록관 운영)

주제영역	KDC	DDC	NDC	UDC	LCC
기록관 운영	028.3 기록관 경영, 관리	025 도서관, 기록관 정보센터의 운영	018.093 문서관 경영·관리, 문서관 직원	-	-
기록관 전문인력	028.32 기록관 직원, 기록물 관리자	023 인사 관리			
관리와 행정	028.34 기록관 예산, 결산, 회계	025.1 행정			
	028.35 기록관 조사, 통계, 평가	025.11 재정			
	028.36 기록관 물품관리				
	028.38 이용규정	022 건물 및 설비			
028.2 기록관 건축 및 설비					

<표 12> 문헌분류체계 비교(기록관리 기관)

주제영역	KDC	DDC	NDC	UDC	LCC
기록관리 기관	-	-	018.09 문서관, 사료관	005.923 기록관리 기관	-
각종 기록관	512.9 병력(의무기록)	026 특수 주제의 기록관	018.096 문서관	005.923.1 기록작성 기관	
		027 일반 기록관	018.097 학교문서관, 대학문서관	005.923.2 기록보관 기관	
			018.098 전문문서관	005.923.21 기록 센터	

관리) 항목을 020-025와 같이 세분하고 있으나, 020(문헌정보학)에서 각종 도서관은 026-027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병원기록관에 관한 항목만이 512.9(의무기록)에 분류할 수 있다.

KDC에서는 기록관리 기관을 포함할 수 있는 분류기호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DDC에서는 도서관, 정보센터와 함께 특수주제의 기록관과 일반 기록관을 분류할 수 있다. NDC와 UDC에서는 기록관리 기관을 비교적 상세하게 세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 기관에 대해 기존 문헌분류표를 비교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4. 「대한민국 국가서지」의 기록관리학 분야 서지 분석

4.1 기록관리학 분야 유별 자료현황

KDC에서 실제로 기록관리학의 문헌이 어떤 분류기호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현재 분류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류표의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2013)의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기록관리학 분야 유별 자료현황을 분

석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는 국립중앙도서관이 1945년부터 2012년까지 납본받은 자료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구입한 국외발행 한국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대학도서관 종합목록 등록자료,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의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 목록정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KSLA) 종합목록 등록자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출판유통 진흥원 DB 등록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미소장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전의 자료는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자료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 13>과 같이 KDC에서 기록관리학 관련 분류기호인 024.91(문서, 사본, 귀중서의 관리), 026.99(기록관리 및 보존기록관), 325.48(문서관리), 325.486(문서보안), 350.52(국가기록관리), 512.9(병력)를 포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 자료에서 KDC의 분류기호 중 기록관리학 관련 분류기호에 분류되어 있는 문헌은 총

<표 13> 기록관리학 분야 유별 자료현황

KDC 분류번호	내용	자료수(건)	비율(%)
024.91	문서, 사본, 귀중서의 관리	1,120	62.50
026.99	기록관리 및 보존기록관	53	2.96
325.48	문서관리	421	23.49
325.486	문서보안	14	0.78
350.52	국가기록관리	31	1.73
512.9	병력: 질병사례 및 의무기록을 포함한다.	153	8.54
합계		1,792	100.00

1,792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자료인 1,120건(62.5%)이 024.91(문서, 사본, 귀중서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024.91(문서, 사본, 귀중서의 관리)가 KDC 제6판이 발간된 2013년 까지 기록관리학의 영역을 분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류항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KDC 제6판에서 기록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 026.99(기록 관리 및 보존기록관)은 KDC 제5판에서는 춘추관, 외사고, 규장각, 장서각 등 고려, 조선 양조의 보존기록관을 나타내는 분류기호였으며, 028(기록관리) 역시 KDC 제5판까지는 공기호였다.

이 외에도 325.48(문서관리)에는 421건(23.49%), 512.9(병력) 항목에는 153건(8.54%)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의 많은 자료가 분류되어 있다. 다만 325.48(문서관리)의 하위 항목에는 325.484(문서작성), 325.489(상업서한문) 등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512.9(병력) 항목에는 기록관리와 관련이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주제분석을 통하지 않고는 기록관리학 관련 문헌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4.2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항목 주제어 분석

앞서 조사한 유별자료 현황의 분석을 보면 기록관리학 분야의 자료는 대부분 024.91(문서, 사본, 귀중서의 관리)과 325.48(문서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의 일부를 조사해 본 결과 기록관리학의 다양한 주제영역들로 세분될 수 있었으며, 일부 항목은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의 주제어를 분석하여 실제 자료의 세부 주제영역을 파악하고, 기록

관리학의 학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분석 자료는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에서 기록관리학 분야에 해당하는 024.91(문서, 사본, 귀중서의 관리), 026.99(기록관리 및 보존기록관), 325.48(문서관리), 325.486(문서보안), 350.52(국가기록관리), 512.9(병력)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제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주제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주제어를 가질 경우에는 좀 더 중점적인 주제어를 하나만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주제어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표제와 목차를 참고하여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기록관리학 관련 분류기호에 분류된 자료 1,792건의 주제어 분석 결과 325.48(문서관리)과 325.486(문서보안)에서는 기록관리학 주제영역과 관련이 없는 문서작성, 상업서한문, 상업서영어 등과 관련한 주제어를 가진 자료가 402건이었으며, 512.9(병력)에서는 기록관리학 주제영역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6건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자료 408건을 제외한 자료 1,384건의 주제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주제어의 영역에 따라 유사한 주제끼리 군집하여 2장에서 정리한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별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학 분야 자료의 주제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KDC 기록관리학 분야 자료의 주제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와 같이 KDC의 기록관리학 관련 주제 중에서는 기록관리 기관에 관한 자료가 580건(41.8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표 14〉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어 분석

구분	주제어(건)	자료수(건)	비율(%)
기록관리학 일반	기록관리학 이론 및 개론(33), 사전(辭典)·사전(事典)·용어사전(11), 연속간행물(11), 학회·단체·협회(10), 교육 일반(12), 대학(원) 교육(2), 단기과정(10), 기록 및 기록관리 역사(19)	108	7.78
기록관리법·정책	기록관 정책 및 행정(34), 기록관리 제도 일반(32), 정보공개 제도(38), 기록관리법 일반(10), 공공기록물 관리법(5), 대통령기록물 관리법(1), 저작권법(1)	121	8.74
기록물 수집·선별·평가	기록물 수집(16), 기록물 선별·평가(21), 이관(2), 폐기(3)	42	3.04
기록물의 조직	기록 분류(31), 기록 기술(목록)(34)	65	4.70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열람(2), 정보서비스 일반(32), 정보탐색 및 검색서비스(16), 이용자 교육(11), 연구지원(1), 기록 콘텐츠 개발(14), 이용자연구(7), 아웃리치서비스(2), 활용촉진서비스(1), 전시(15), 홍보(2)	103	7.42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록물 관리 일반(40), 장서 관리(3), 문서, 사본 관리(11), 시청각 자료 관리(31), 지도 자료 관리(2), 고문헌 관리(58), 구술 자료 관리(23), 기록물 보존 일반(50), 비상계획(재난관리)(8), 전자기록관리(49), 전자기록시스템(24), 디지털 아카이빙(32)	331	23.90
기록관 운영	기록관 운영 일반(14), 기록관 전문인력(17), 건축설비(3)	34	2.46
기록관리기관	공공기록관리 기관(33), 국가기록원(17), 지방기록물관리 기관(59), 대통령 기록 및 기록관(28), 학교 기록 및 기록관(60), 기업 기록 및 기록관(30), 사회운동 기록 및 기록관(22), 종교 기록 및 기록관(13), 문화, 예술 기록 및 기록관(44), 병원 기록 및 기록관(152), 교정 기록 및 기록관(2), 역사 기록 및 기록관(15), 수사 기록 및 기록관(1), 유네스코 기록 및 기록관(11), 국방 기록 및 기록관(20), 법률 기록 및 기록관(6), 조선총독부 기록 및 기록관(5), 민간 기록 및 기록관(16), 정치(정당) 기록 및 기록관(9), 건축 기록 및 기록관(6), 방송(언론) 기록 및 기록관(3), 연구 기록 및 기록관(9), 캐나다 기록 및 기록관(1), 호주 기록 및 기록관(2), 미국 기록 및 기록관(2), 영국 기록 및 기록관(1), 중국 기록 및 기록관(1), 독일 기록 및 기록관(1), 일본 기록 및 기록관(8), 남유럽 기록 및 기록관(2), 북한 기록 및 기록관(1)	580	41.87
합계		1,384	100.00

으며, 이 가운데 병원 기록 및 기록관(152건), 학교 기록 및 기록관(60건), 지방기록물관리 기관(59건), 문화·예술 기록 및 기록관(44건)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한 자료는 331건(23.9%)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문헌 관리(58건), 기록물 보존 일반(50건), 전자기록관리(49건)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록관리법·정책은 121건(8.74%), 기록관리학 일반은

108건(7.78%), 기록물의 조직은 65건(4.7%), 기록물 수집·선별·평가는 42건(3.04%), 기록관 운영은 34건(2.46%)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기록관리학 분야 자료의 주제어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주제분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자료가 024.91(문서, 사본, 귀중서의 관리)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항목 세분이 필요하다.

5. KDC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체계 개선방안

5.1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체계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3장의 기록관리학 분야 문헌분류 체계 분석과 4장의 KDC 기록관리학 분야의 서지분석을 통해 나타난 KDC 기록관리학 분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을 통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분류기호 설정이 미흡하다. KDC에서는 기록관리학 관련 주제의 자료를 026(일반도서관) 항목의 아래인 026.99(기록관리 및 보존기록관)에 분류하거나 028(기록관리)에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기록관리학을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보고 있기보다는 문헌정보학에서 다루고 있는 도서관의 한 형태로 기록관을 보거나, 기록관리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경제학 분야의 325.48(문서관리), 행정학 분야의 350.52(국가기록관리), 의학 분야의 512.9(병력: 의무기록)는 기록관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영역의 일부가 분산되어 있다.

이는 다른 기존의 문헌분류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다. DDC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록관리학을 문헌정보학과 동일한 학문영역으로 보고 020(문헌정보학)에 기록관리학을 포함하는 주기를 두었다. 따라서, 020 항목에 기록관리학을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록관리학의 문헌은 문헌정보학 문헌과 동일한 위치에서 세분되기 때문에 두 학문 영역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분류의 의미가 퇴색되고, 기록관리학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혼돈을 줄 수 있다. 또한, 651.5(기록관리)는 사무기록

관리 중심으로 항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NDC는 2014년 개정된 신정 10판에서 018.09(문서관, 사료관)의 세부전개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록관을 전문도서관의 한 형태로 보고 해당 기관의 업무와 종류를 중심으로 상세 분류한 것으로 기록관리학 학문영역을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제 분야의 336.55(문서관리)는 기록관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영역의 일부에 해당한다. UDC에서는 기록관리의 영역이 사무기록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005.92(기록관리)와 보존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930.25(기록학 및 보존기록)로 나누어져 있다. LCC에서도 사무기록관리 중심으로 분류표가 전개되어 있다.

둘째, 기록관리학과 관련된 분류전개가 기록관리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KDC에서는 기록관리학을 세분하기 위해서 020(문헌정보학) 세부항목인 020-025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 평가, 메타데이터, 전자기록관리, 웹아카이빙 등 주요항목이 하위 항목에 위치하여 분류기호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카드목록, 기록물 배가, 서고와 서가, 편의 공간 등 문헌정보학에서 중요한 항목들이 상위항목으로 배치되어 분류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셋째, 기록관리학의 일부 주제영역에 대한 세부 항목이 부족하다. KDC에서는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항목 서지 분석 결과 41.87% 가장 많은 자료가 생산되는 주제 분야인 각종 기록관에 대한 전개가 병원기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하다. 또한, 기록관리 분야의 정책과 제도, 기록관리 관련 법령, 기록물의 수집·선별·평

가, 전자기록관리, 디지털 아카이빙, 비상계획 등에 관한 항목의 세부 전개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KDC의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전개에 있어서 학문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기록관리학의 분류기호의 위치 선정 및 하위 분류체계의 논리성과 확장성이 부족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 및 주제영역, 기존 분류체계,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분류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5.2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체계 개선 원칙

KDC 기록관리학 분야의 문제점을 보완한 분류체계 개선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록관리학 분야 항목을 통합한다. KDC 6판에서 기록관리학 관련 항목은 문헌정보학의 하위 항목인 026.99(기록관리 및 보존도서관), 024.91(문서, 사본, 귀중서 관리), 경제학의 하위 항목인 325.48(문서관리), 행정학의 하위 항목인 350.52(국가기록관리), 510(의학)의 하위 항목인 512.9(병력: 의무기록 관리)에 분산되어 있다. 이를 KDC 6판에서 '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028에 통합하여 세분한다.

둘째, 028의 표목을 '기록관리학'으로 변경하여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전개 항목의 표목은 기록관리학 분야의 개론서 및 기존 문헌분류표의 명칭을 참고하여 부여한다.

셋째, 028(기록관리학)의 '세목'은 앞서 2장에서 제시한 8개의 주제영역을 기준으로 전개하고, 2개의 기호는 추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공기호로 둔다. 그 이하의 추가 전개는 기존의 문헌분류표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고, 4장의 KDC 기록관리학 분야 서지분석을 근거로 새롭게 추가한다.

넷째, 기존의 기록관리학 관련 문헌이 분류되었던 분류체계는 용어를 수정하거나 주기를 추가하여 각 항목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며, 기록관리학 학문분야의 내용은 028에 분류될 수 있도록 한다.

5.3 KDC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체계 개선 내용

5.3.1 기록관리학 통합 전개 방안

앞에서 제시한 분류체계 개선 원칙 따라 기록관리학 학문분야를 028로 통합하여 분류체계를 개선 방안을 <표 15>와 같이 제시하고, 주요 항목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표 15> 기록관리학 통합 전개 방안

분류번호	내용
028	기록관리학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기록학, 기록보존학을 포함한다.
.01	이론 기록관리학의 일반적 이론, 기록관의 목적 및 기능 등을 포함한다.
.03	사전(辭典), 사전(事典), 용어사전
.05	연속간행물
.06	학회, 단체, 협회, 기관, 회의
.07	교육 및 훈련
.09	기록 및 기록관리 역사

분류번호	내용
028.1	기록관리 법, 정책
.11	기록관 정책 및 행정
.12	기록관리 제도 정보공개 제도, 납본 제도 등을 포함한다.
.13	기록관리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저작권법 등을 포함한다.
.131-7	각국의 기록관리법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028.2	기록물 수집, 선별 및 평가
.21	기록물 수집
.22	기록물 선별
.23	기록물 평가
.24	기록물 폐기 재평가, 처분 등을 포함한다.
028.3	기록의 분류, 기술(description)
.31	기록 분류
.32	기록 기술 보존기록의 기술(archival description), 메타데이터, 기술규칙 등을 포함한다.
028.4	기록정보서비스
.41	기록물 열람 온라인 열람, 오프라인 열람, 대출, 복사 등을 포함한다.
.42	정보서비스 정보 탐색 및 검색 서비스, 이용자 교육, 연구 지원, 기록 콘텐츠 개발 등을 포함한다.
.43	이용자 연구
.44	아웃리치서비스
.45	활용촉진서비스 전시, 견학, 홍보, 행사 등을 포함한다.
028.5	기록물 관리 및 보존
.51	기록물 관리
.511	장서, 문서, 사본
.512	고문헌
.513	시청각 자료
.514	구술 자료
.515	기타 자료
.52	기록물 보존 소독, 훈증, 탈산, 온도 및 습도관리, 파손방지 및 복원 등을 포함한다.
.53	전자기록관리
.54	전자기록시스템
.55	디지털 아카이빙
028.6	기록관 운영
	기록관의 경영, 조직, 회계, 이용규정 등을 포함한다.
.61	기록관 전문인력 기록관리자, 보존기록관리자, 매뉴스크립트 큐레이터, 보존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62	기록관 건축 및 설비 건축계획, 건축재료, 설계, 서고 및 서가, 관련 비품 등을 포함한다.

분류번호	내용
028.7	기록관리 기관 각국의 기록관은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특정기록관에서의 특수활동, 기능 및 특징 등은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예: 국가기록원의 전자기록관리 028.53; 대통령기록관의 전시활동 028.45
.71	공공 기록관리 기관
.711	국가기록원
.71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713	대통령기록관
.72	주제 기록관리 기관(민간기록물 포함)
.721	학교(대학) 기록 및 기록관
.722	기업기록 및 기록관
.723	사회운동 기록 및 기록관
.724	종교 기록 및 기록관
.725	문화·예술 기록 및 기록관
.726	병원 기록 및 기록관
.729	기타 전문 기록관 각 주제(전문)분야의 전문 기록관은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한다. 예: 건축기록관 028.72954

5.3.2 기록관리학 관련 분류기호 수정 방안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에 포함하는 모든 내용을 028(기록관리학)에 통합하여 전개함에 따

라 기존 분류표에서 기록관리학 관련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분류기호를 <표 16>과 같이 수정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표 16> 기록관리학 관련 분류기호 수정 방안

KDC 제6판	수정 방안
024.91 문서, 사본, 귀중서	[024.91] 문서, 사본, 귀중서 기록관리학에 관한 저작은 028(기록관리학)에 분류한다.
026.99 기록관리 및 보존기록관	[026.99] 기록관리 및 보존기록관 기록관리학에 관한 저작은 028(기록관리학)에 분류한다.
325.48 문서관리	325.48 문서작성 [전 문서관리] 문서관리에 관한 저작은 028(기록관리학)에 분류한다. 예: 문서관리 028.511
325.486 문서보안	[325.486] 문서보안 028.55에 분류한다.
350.52 국가기록관리	[350.52] 국가기록관리 국가기록관리에 관한 저작은 028(기록관리학)에 분류한다. 예: 국가기록원의 전자기록관리 028.53; 대통령기록관의 전시활동 028.45
512.9 병력	(512.9) 의무기록관리 [전 병력] 028.726에 분류한다. 별법: 도서관에 따라 의무기록을 여기에 분류할 수 있다.

KDC6의 024.91(문서, 사본, 귀중서), 026.99(기록관리 및 보존기록관), 325.486(문서보완), 350.52(국가기록관리)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는 삭제하고 해당 내용은 028(기록관리학)의 전개에 따라 분류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앞서 4장의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항목 주제어 분석 결과 325.48(문서관리)에 분류된 자료는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과 관련이 없는 문서작성, 상업서한문, 상업서영어 등이 대부분이었으므로 325.48의 표목을 '문서작성'으로 변경하고 문서관리에 관한 저작은 028(기록관리학)의 전개에 따라 분류하도록 수정하였다.

의무기록은 028.726(병원 기록 및 기록관)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512.9(병력)는 표목을 '의무기록관리'로 변경하고 별법을 두어 도서관에 따라 의학 주제 하위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결론

이 연구는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영역을 바탕으로 현대 주요 문헌분류표의 분류체계,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록관리학 분야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을 통해 KDC 기록관리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학의 학술문헌과 교과과정 분석 결과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을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 법·정책, 기록물의 수집·선별·평가, 기록물의 조직,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KDC를 비롯한 기존 문

헌분류법에서는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을 통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분류기호 설정이 미흡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여러 주제에 분산되어 있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 및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기록관리학 분야 분류항목 서지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자료가 생산되는 주제 분야인 각종 기록관에 대한 전개가 KDC에서는 병원기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분야의 정책과 제도, 기록관리 관련 법령, 기록물의 수집·선별·평가, 전자기록관리, 디지털 아카이빙, 비상계획 등에 관한 분류항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록관리학에 관한 분류 항목은 KDC 6판에서 '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028에 통합하여 세분하였으며, 표목은 학문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 '기록관리학'으로 변경하였고, 세부 전개 항목은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 및 기존 문헌분류표 관련 항목을 참고하고, KDC 기록관리학 분야 서지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새롭게 추가하였다.

넷째, 기존의 기록관리학 관련 문헌이 분류되었던 분류 항목은 용어를 변경하거나 주기를 추가하여 각 항목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기록관리학 관련 분야의 내용은 028로 통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KDC 기록관리학 분야의 서지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의 전체 유별자료 현황과, 해당 자료의 주제어를 분석하여 분류체계 개선에 반영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KDC 기록관리학 분야에 대한 개정작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3. 『대한민국국가서지 2012』.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 김수정. 2013. KDC 제6판 디자인학 분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3): 53-72.
- 김정하. 2007. 『기록물관리학 개론』. 서울: 아카넷.
- 김정현. 2012.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의류학 분야의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101-120.
- 김정현. 2014.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관광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03-123.
- 김정현, 문지현. 2001. 한국십진분류법 농학류의 분류기호 수정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223-248.
-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문지현, 김정현. 2009. 어린이도서 분류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27-46.
- 박희진. 2014.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99-125.
-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 이희진, 김정현.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체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301-317.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 최정태. 2006. 『기록학 개론』.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 최정태 외. 2005. 『기록관리학사전』. 파주: 한울.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기록관리론』. 3판. 성남: 아세아문화사.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2013. 『한국십진분류법』. 6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미경, 노영희. 2011.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학술정보.
- 日本圖書館協會. 2014. 『日本十進分類法』. 新訂10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Schellenberg, Theodore R. 2002. 『현대 기록학개론』. 이원영 역. 서울: 진리탐구.

- Williams, Caroline. 2008. 『기록관리학의 이해』. 남태우, 김유승 역. 대구: 태일사.
- Dewey, Melvil.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th ed. Dublin, Ohio: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 National Library [online]. [cited 2016.5.20]. <<http://www.nl.go.k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nline]. [cited 2016.3.17]. <<http://www.knu.ac.kr>>.
- Pusan National University [online]. [cited 2016.3.17]. <<http://www.pusan.ac.kr>>.
- Wonkwang University [online]. [cited 2016.3.17]. <<http://www.wku.ac.kr>>.
- Ewha Womans University [online]. [cited 2016.3.17]. <<http://www.ewha.ac.kr>>.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nline]. [cited 2016.3.17]. <<http://www.jnu.ac.kr>>.
- Chung-Ang University [online]. [cited 2016.3.17]. <<http://www.cau.ac.kr>>.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online]. [cited 2016.7.22]. <<http://www2.archivists.org/glossar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Ro-Sa and You-Seung Kim.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87-100.
- Choe, Jung-Tai. 2006. *An introduction to archival studies*. Seoul: The Asian Culture Press.
- Choe, Jung-Tai et al. 2005. *The glossar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aju: Hanol. Committee of Classification,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6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Han, Mi-kyung and Younghee Noh. 2011. *Records archives*.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Japan Library Association.
2014.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10th ed. Tokyo: Japan Library Association.
- Kim, Gyu-Hwan, Bo-Seong Jang, and Hyun-Jung Yi.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tles."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417-439.
-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 Kim, Jeong-Hyen. 2012. "The Improvements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n the 5th Edition of KDC."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101-120.
- Kim, Jeong-Hyen. 2014. "The Improvements of the Tourism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03-123.
- Kim, Jeong-Hyen and Ji-Hyun Moon. 2001. "A Study on the Revision and Extension for Agricultural Field of the KDC."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1): 223-248.
- Kim, Jung-Ha. 2007. *European archival science*. Seoul: Acanet.
- Kim, Soojung.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Design Field in the 6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3): 53-72.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Yuksabipyungsa.
-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2013.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3rd ed. Seongnam: The Asian Culture Press.
- Lee, Hee-Jin and Jeong-Hyen Kim. 2013. "The Improvem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301-317.
- Lee, Jae-Yun, Ju-Young Moon, and Hee-Jung Kim. 2007.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al Science in Korea with Text Mining."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45-372.
- Moon, Ji-Hyun and Jeong-Hyen Kim.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27-46.
- Park, Heejin.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in North America through the Review of Archivaria."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14(4): 99-125.
- Schellenberg, Theodore R. 2002. *Modern archives*. Trans. Won-Young Lee. Seou: Jinritamgu.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3. *2012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Williams, Caroline. 2008. *Managing archives*. Trans. Tae-Woo Nam, You-Seung Kim. Daegu: Taelisa.